

# 술정이

예수성탄대축일

2009년 12월 25일 (다해)

교구개간지

상백함

1년 구독료 : 10,000원  
후원계좌 전북 505-13-0313012

발행인 | 이병호 편집 |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1947호.

주소 | 560-110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-3 전화 | (063)230-1004팩스 | (063)283-9365 <http://catholic.or.kr> E-mail | [catholicl4@hanmail.net](mailto:catholicl4@hanmail.net)



출처 : [http://www.marysrosaries.com/shared\\_pictures/religious/events/original/Nativity\\_01.jpg](http://www.marysrosaries.com/shared_pictures/religious/events/original/Nativity_01.jpg)

“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.”

- 요한 1,14 -



## 들어라.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.



이병호 빈첸시오 주교  
(전주교구장)

“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.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 주지 않았다.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”(요한 1,10-12).

성탄이 되어 구유장식 앞에 서면, 우리는 이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. “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”이 거기 걸려 있는 데도, 사람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거나,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오늘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그 옛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동들처럼, 오늘도 온갖 어려움을 안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그 짐을 가벼운 듯 짊어지고 큰 보람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

다행스럽게도 그분을 믿어 하느님의 자녀가 되신 형제자매 여러분!

너무나 뜻밖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가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 속 깊이에, 그리고 가정과 하시는 일에도 들어오시기를 기원합니다. 그렇게 해서 삶이 아무리 겨울처럼 스산하고 추워보여도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오시는 그분 덕택에 늘 따뜻하고 넉넉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.

지난 일 년 동안 우리는 나라에서 특히 잘 알려졌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. 김수환 추기경님,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선종하셨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중 매체를 통해서 잘 알려졌던 여러 분들은 뜻하지 않게 삶을 마치셨습니다.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, 많은 사람들의 삶이 길보기와는 달리 얼마나 무겁고 삭막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.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



듭니다.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. “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.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.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떼고 나에게 배워라.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. 내 명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”(마태 11,28-30).

권력자는 법도 절차도 건너 뛴 채 수천만, 수억 년에 걸쳐 자연이 만들어놓은 산하를 파헤치고, 여유 있는 계층은 이웃의 손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점점 더 외면하고, 배운 사람들은 그 머리를 공익 대신 자신만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 굴리고 있을 때,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십니다. 그분은 맨 끝자리를 차지하셨기 때문에, 아무도 그 자리를 빼앗으려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권력자, 재력가, 지식인들은 한 때 반짝하고 자리를 떴지만,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, 언제나처럼 서러운 사람,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사람,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. 세상은, 우리 모두는,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, 이 분을 찾고 이분에게서 영혼의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.

아니 우리가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오시어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서  
말씀하십니다.

“들어라.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.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, 그 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”(묵시 3,20).



## †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 미사

제 1독서 이사 62:1-5

회답송 시편 89(88):4-5.16-17.27과 29(◎ 27)

◎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.

제 2독서 시도 13:16-17.22-25

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내일 세상의 죄악이 사라지고, 구세주 우리를 다스리시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음 마태 1:1-25<또는 1:18-25>

영성체송 이사 40:5 참조

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, 모든 사람이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.



## † 예수 성탄 대축일 낮 미사

제 1독서 이사 52:7-10

회답송 시편 98(97):1-2-3c-3d-4-5-6(◎ 3d-2)

◎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, 온 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.

제 2독서 히브 1:1-6

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으니, 모든 백성들아, 와서 주님께 경배하여라. 오늘 큰 빛이 세상에 내리셨다.

◎ 알렐루야.

복음 요한 1:1-18<또는 1:1-5.9-14>

영성체송 시편 98(97):3

우리 하느님의 구원을, 온 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.

## †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

제 1독서 이사 9:1-6

회답송 시편 96(95):1-2-2L-3L-12.13(◎ 루카 2:11)

◎ 오늘 우리 구원자,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.

제 2독서 티토 2:11-14

복음 환호송 루카 2:10-11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니,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.

◎ 알렐루야.

복음 루카 2:11-14

영성체송 요한 1:14

말씀이 사람이 되셨네.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.